나를 새롭게 하소서

작성일 : 2009. 12. 6 (일) 오후 6:39~6:46
작성자 : 김효정 (서울 석계 기쁨의 교회, 평화의료선교부)

[대구·경북 천국 성령 집회
(사랑과 성령으로 주를 맞으라)에서
'새롭게 하소서' 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던 중
받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로 너의 모든 육성을 태우노라.
오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부활의 인생길 결단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서 이루어 갈 것이다.
깊이 깨닫고 네 인생을 오직 나에게 드리어
나를 나타내고 내 사랑을 알리어
인생들의 심정 속에서
하늘만을 사랑하고자 결심하게 해야 하고,
흑암에 빼앗겨 주저하며 하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소외감과 섭섭함으로
섭리 역사의 변두리에서 눈물만 흘리는
섭리의 신부들을 모두 깨워야 한다.

너에게 사랑의 성령을 부여하노라.
나에게 네 사랑의 100%를 고백하고
영원히 하늘 모시고 부흥의 역사를 가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하면 새사람이 되리라.

네 스스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라.
성령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애절한 심정의 사랑을 받아서
인류사에 하늘 사랑 회복을 위해
네 인생을 완전히 몰입하여라.

나는 오직 너의 사랑이라.
그것을 믿는 것이 너의 힘이며
네가 가는 그 곳에 언제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사랑의 역사를 잔잔히 일으켜 갈 것이니
휴지에 물이 스며들 듯
섭리 역사에 사랑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이여.
나는 이 날을 위해 이제껏 너를 지키었노라.
내 뜻을 받들어라.
엄숙히 하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말고
네 부족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라.